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나는대한민국 유권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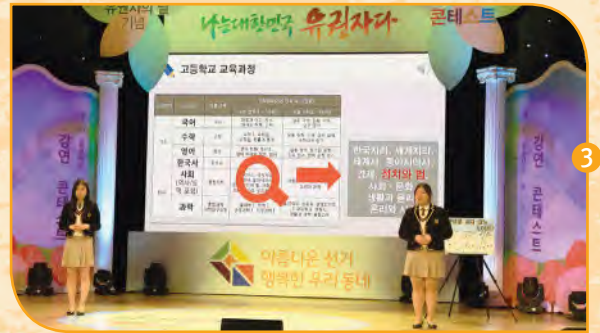
03



강연 콘테스트 수상작



- ① 성남고 패밀리 - 반장선거
- ② 극단 사춘기 -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 ③ 그린나래 - 첫 선택, 첫 선거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 ④ 손지호 - You 'will리'더
- ⑤ 최진혁 - 오도일이관지
- ⑥ 또바기 꼬망세 - 다음 역은 마지막 한 조각 역입니다.
- ⑦ 선거관리요정들 - 선거관리요정회



수상자 강연내용



대상

청소년부

성남고 패밀리

반장 선거

● 강연 소개

그동안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반성하고,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저희의 생각을 담은 창작 연극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분명 얻은 것이 있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장 선거'는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모 고등학교 2학년 7반을 배경으로 빚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 강연 요약

학기 초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7반. 아침 조례를 시작한 선생님이 반장선거에 대한 공지를 발표한다. 반장 후보에 출마하는 학생은 엄석대와 황기쁨. 황기쁨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똑똑한 친구라서 반장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반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마 중학교 시절부터 항상 해오던 반장선거이기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황기쁨의 공약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의 공약과 말씀씨는 감탄스러웠지만, 학생들은 집중조차 하지 않은 채 수다를 떨고 있다. 곧 시작된 반장선거. 대부분의 무효표들과 함께 결과는 엄석대의 승리이다. 사실 엄석대는 불량 학생이었고, 그의 공약은 형편없었지만, 그의 친한 친구들이 황기쁨의 친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황기쁨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엄석대가 반장을 맡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7반 학생들은 그를 반장으로 뽑은 걸 후회하게 되었다. 한 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가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선생님들은 7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김민수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반대향전으로 축구를 하고,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을 쓰기로 했다면 반 학생들의 돈을 걷기도 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7반의 학생들. 결국 그들의 반대 운동으로 그는 파면되었다.

● 참여 동기

저희는 종종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홍보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며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최우수상

청소년부

극단 사춘기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강연 소개

유진이와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인이 되서 하고 싶은 걸 적어오라는 일에 술과 클럽 등 놀 생각만 할 뿐이다. 유진이는 집을 가는 도중 이상한 길을 가게 되고 지니라는 친구를 만난다. 지니는 투표가 중요하단 걸 말하지만 믿지 않고 집으로 가서 잠이 든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높은 의원직에 있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는 꿈을 꾸고 그 뒤로 투표의 중요성을 알게된다.

강연 요약

선거에 관심 없는 유진과 친구들,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걸 버킷리스트로 적어오라는 담임 선생님의 숙제에 싫증을 내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공 유진은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다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상한 골목에서 떨어져 있는 반지를 줍게 되는데, 그 반지는 지니의 반지였다. 유진이 반지를 통해 지니를 만나게 되고, 지니는 유진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적힌 버킷리스트를 보다가 선거와 투표에 관련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유진을 가르치려 한다. 유진은 지니의 말들이 훈계 질처럼 들리고, 지니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 그 날 유진이는 꿈속에서 우리가 투표를 안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꿈에서 깬 유진이는 지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후에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이 된다.

참여 동기

연극 하나를 올리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연극을 같이 올리는 팀과 많이 친해집니다. 새로 뽑은 연극부 단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무슨 연극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유권자의 날 강연 콘테스트에서 연극부분도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우수상

청소년부

그린나래

첫 선택, 첫 선거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 강연 소개

어리다고 해서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여러가지 이유로 선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미래의 유권자 혹은 새내기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선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 강연 요약

황보진희와 차유진! 이 두 아이는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희는 아주 작은 선택조차 다른 사람이 주로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유진이는 모든 선택을 스스로 했습니다. 내년이면 이 두 아이는 만 19세가 되어 대한민국 유권자가 됩니다. 처음으로 유권자로서 행하는 한 표는 두 아이 모두에게 쉽지 않습니다. 진희는 아주 작은 선택도 다른 사람이 해주었기 때문에 나라의 큰 결정을 선택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진이는 학교에서 투표할 기회가 있지만 학교 선거의 경우 활동기간도 짧고 그에 따라 영향도가 적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4~5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리다고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유권자 혹은 새내기 유권자들은 지금껏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었거나 처음으로 행하는 선거가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첫 선거가 마치 첫 선거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먼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투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유권자들이 첫 투표의 계단을 밟아야 계속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결국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선택이, 첫 선거가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모두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 동기

저희는 내년이 되면 유권자가 되는 만 19세가 됩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권자가 된다는 것보다 단지 성인이 되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같은 미래의 유권자들이 과연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러던 중 우연히 ‘유권자의 날 강연 콘테스트’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거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장려상

청소년부

손지호

You 'will리' 더

강연 소개

월리 찾기 게임에 나오는 월리를 진정한 정치인으로 빗대어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서서 관심을 가진다면 뽑고 후회하는 일 없이 진정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적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들이 모이고 모여 내를 이룬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 '진정한 정치인', 월리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YOU 'WILL'리더

강연 요약

여러분 '월리 찾기 게임'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신기했지만 이 게임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명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진짜 월리를 찾아낼 때, 수많은 가짜 월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두 발로 뛰고 모두를 위해 노력하는 월리를 찾지 못하고 이런 정치인의 이미지를 먼저 연상하게 될까요? 월리에 대한 정보 없이 "누굴 뽑아야 하지" "누굴 뽑을 거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충 뽑자"라는 식으로 투표에 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의 정확한 정보 없이 학연 지연으로 뽑은 정치인은 선거 공약은 나몰라라하고 유권자들을 슬프게 하는 행동으로 실망시켰지요. 저는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기본자세를 먼저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정치인이 오늘은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국민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선거전에 외치던 공약실천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핸드폰 앱으로 매일 정보를 받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보와 공약을 검색해 보고, 이 공약이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따져 보는 적극적인 유권자들의 자세가 있어야 잘못된 정치인을 뽑은 후 후회하는 일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실과 바늘, 모니터와 키보드 같은 존재로 국민과 국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참된 정당,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다면, 투표 후 허탈해 하는 어른이 없을 것입니다.

참여 동기

대회 일주일 전에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는데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고 강연을 해 보는 대회는 굉장히 독창적이라 생각해 추억도 만들고 경험도 쌓기 위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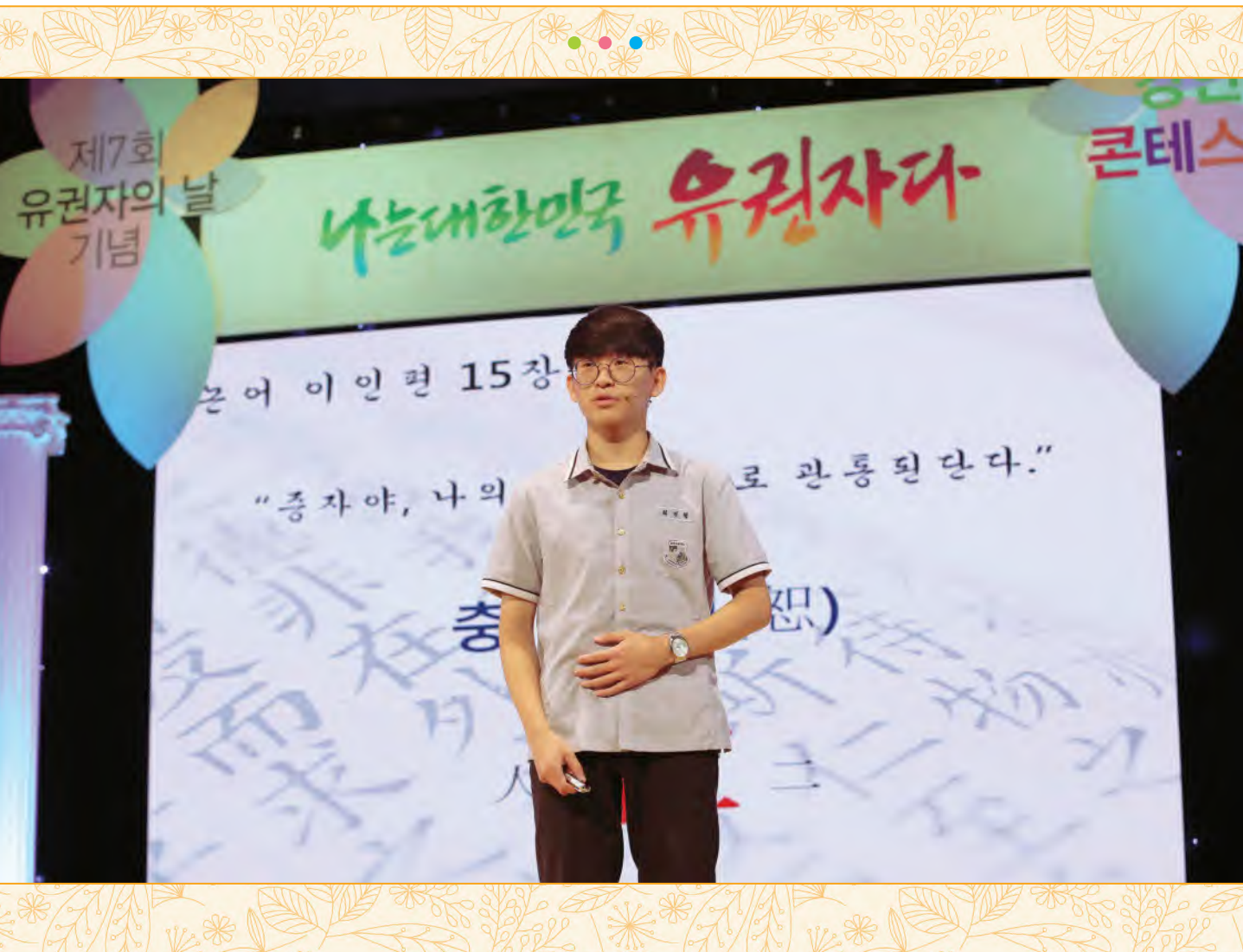
수상자 강연내용



장려상

청소년부

최진혁

오도일이관지

강연 소개

저의 강의는 본립도생의 정신에 입각합니다. 어떠한 질문에 기원을 찾는게 주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장 이상적인 유권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도일이관지’라는 공자의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 합니다.

강연 요약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오도일이관지-나의 도는 하나로써 통한다“ 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유학의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의무와 권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의 기원은 개인이 집단을 이루게 된 배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고, 그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권리 등과 같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집단을 유지하려 하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먼저 제시하지 않은,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 의무를 행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위한 암묵적 의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도 발전하고 다른 방법으로써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선거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유권자의 날이라는 행사도 마련해서 사람들의 선거권을 강조하는데, 국민이 권리를 먼저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불공평 한 것이지요. 오도일이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로 충(忠)서(恕)라고 할 수 있지요. 너와 내가 경계를 허물어서 같게 된다는 뜻이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질 인(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다는 것은 충서이자 오도일이관지이겠지요. 우리 사회에 대입하면 결국 국가와 국민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정치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서 전국민의 지식수준이 함양시킨 후에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좋은 길로 간다면, 이상적인 유권자의 모습,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통합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인(仁)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참여 동기

서론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바로 표현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관이 뚜렷하여서 저의 진로와 관련한 많은 지식을 익히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 체계에도 적용해 보았는데 정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의 지식으로 비롯된 생각에 불과하지만 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의 충고나 평가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의 매개체로 이 대회가 적절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강의를 통해서 저의 발전 뿐만아니라 ‘유권자의 날’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장려상

청소년부

또바기 꼬망세

다음 역은 마지막 한 조각 역입니다.



● 강연 소개

우리는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전화통화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바탕으로 선거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와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유권자의 중요성을 완성되지 못한 퍼즐에 빗대어 표현하며, 촛불의 밝기가 우리의 한 표와 같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누리는 것임을 친근하고 솔직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강연 요약

지하철을 타고 가는 ‘민준’이와 다른 학교 학생 ‘지유’와 ‘수아’는 민준이와 엄마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민준이에게 엄마는 그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유와 수아는 저런 생각이 합리적인가, 또한 우리 또래 아이들의 생각이 저렇다면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봉평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선거의 필요성을 모르고 왜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한 조각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는 퍼즐로 민주주의, 자유, 평등이 아무리 보장된다 한들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며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장난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며, 어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선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알려 모두가 함께 조금씩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는 남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며 선거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학교를, 우리지역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며 우리 생활 속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누리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촛불의 밝은 정도를 내가 유권자로서 가진 소중한 한 표와 비유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 참여 동기

‘너희는 왜 그렇게 참견 하는 게 많아?’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이번 대회 주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고, 저희의 작은 외침이 모여서 우리주변의 생각이 변하고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세상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장려상

청소년부

선거관리요정들

선거관리요정회

강연 소개

선거를 하지 않는 성인을 선거관리요정들이 선거를 하게끔 유도하는 스토리가 주를 이룬다. 선거의 4원칙,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등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강연 요약

선거관리요정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소개한 후, 6. 13. 지방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 점, 한표 한표는 작지만 모이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고, 선거의 4대원칙(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을 들려준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침내 반성하고, 선거는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요정들과 사람들이 선거 참여의 노래를 부른다.

저 결심했어요. 투표할래요.

우리 우리의 한표 한표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겠어요.

우릴 대신하는 대표자 뽑아요 간접 민주주의지요.

대표자를 뽑는 건 중요해요.

우리표는 정책을 좌우해요. 우리 대한민국 함께 발전시켜가요

우리의 목소리는 권리를 지켜

우리 미래 투표용지에

선거는 열림

선거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

우리 함께 선거는 열림

참여 동기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며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뮤지컬 동아리에 속해있는 우리가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잘 각색하여 타인에게 전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본을 쓰고 있던 와중에 강연 콘테스트라는 좋은 장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GLEA

유권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참여 동기

2018년도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 동아리에서 배우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 콘테스트라는 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반장 선거나 전교 임원 선거 등과 같이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선거와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를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요약

“반장 선거” “핸드폰 제출” “청소 담당” 3가지의 상황을 제시하여 학급 내에서 학생들 즉,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했습니다. 무관심하고 걱정이 없는 측면과 관심 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을 제시하여 반장을 선출하는 과정과 선출 이후의 학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속에서 “후보자, 지도자의 능력보다 유권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HAPAD

세상을 바꾸는 유권자의 힘

참여 동기

동아리에서 매년 참가해오던 활동이고,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는 점이 동아리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팀 단위로 참가하여 모두가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고, 모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참가를 결정하였다.

강연 요약

사회 문제에 좌절하기 보다 참정권 행사 등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것을 주제로 연극을 짰고, 지킬 생각이 없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과, 그를 보고 권리 행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가면

우리들의 민주주의

참여 동기

5회 때부터 선배들께서 참가하시기도 하였고, 마찬가지로 6회 때도 선배들과 함께 참가하여, 본선까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고, 아쉽게도 시험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여 결선까지는 가지는 못 하였지만, 이번 7회 때는 정말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요약

학생회 임원들이라는 소수의 인물들에게만 학생회장을 뽑을 수 있는 제한된 투표권을 주는 학교를 배경으로, 오랜 기간의 전통에 따라 뽑힌 현 학생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잘못된 선거방식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학교라는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걸 인정하고 정체되어 있던 학교의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낸 뮤지컬 입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박정겸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참여 동기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건과 국가적 위기를 보고 자란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지금인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우리나라를 지킬 힘과, 내가 살아갈 환경,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를 뽑는 것, 이 모든 것이 유권자인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거의 관심이 없죠.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와 좀 더 가까운 관심사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유권자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요약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열정을 뒤킴 할 수 있는 사진들, 또 참고 자료들을 추가해 PPT를 만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요소들도 듬뿍 넣었습니다. 물론 본질은 흐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위드(with)

우리 주변의 민주주의

참여 동기

평소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알고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강연을 듣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강연을 통해 저희도 더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연 요약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모든 순간에 민주주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흘러갑니다. 학교, 집, 이웃간에 민주주의의 종류를 설명하고 민주주의 성공, 실패 사례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이유나

4247만9,710명을 70명으로 줄이면

참여 동기

국제크리스찬 학교인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목소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생회가 출범하고 학생자치기구가 설립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 의해 많은 행사를 치르고는 학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90%가 넘었으나 그 중요성을 깨닫고 엄청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의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대한민국의 국민의 참정권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요약

학생회가 처음 만들어 질 때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고 학교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듬해 학생회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회집단인 학교의 참정권의 소중함 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참정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수상자 강연내용



선거연수원장상

청소년부

이준오

다른 관점으로 보는 선거

참여 동기

나의 참가 동기는 지금 전교 부회장인데 공약이 비데 시범설치였는데 강연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해서 상금을 타서 스스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또 다른 이유는 투표에 중요성을 몸소 느낀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에게 그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강연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가고 싶어서 참가하게 된 것 같다.

강연 요약

나의 작품은 PPT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와 투표 절차를 누리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우리가 투표권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그리고 정말 투표를 왜 중요하고 바쁜 와중에도 절대 투표권을 왜 저버리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게 다룰 생각이다.



언론보도 현황

중앙일보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021면 종합

“만 18세면 결혼·군대도 가능, 투표권만 없는 건 모순”

직장인 김재휘씨, 공감 연설로 대상
제치있는 입담으로 일상 경험 소개
청소년부 대상 세종 성남고 학생들
“내 일처럼 사회 문제 관심 가져야”

“아버지 제가 대상 먹었어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강연 콘테스트’ 결선 현장. 대상을 받은 김재휘(27) 씨가 수상 발표 직후 눈물을 흘리곤 말했다. 그는 “매일 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1주기였다. 지금 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휘(왼쪽)와 김예진(오른쪽)씨는 일상 속 경험을 통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세종 성남고대상·원곡 둘째와 경기 도라고(하위)수상·원곡 셋째 학생들은 연극으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 콘테스트’는 선거와 관련한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행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일보가 올해로 7 회째 마련했다.

김씨의 꿈은 원래 교사였다. 사범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지만 남들처럼 임용 시험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학창시절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을 마치고 전부터 취업에 돈을 벌었다. 다행히도 그의 첫 직장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꿈과 비전,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는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따스한 함·오빠 같은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모님은 그가 초등학교 때 사업이 크게 부도났다. 두 분은 갈거리에서 불어뻐를 팔며 김씨와 남동생을 키웠다. 힘든 가정환경이었지만 김씨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다. 특히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무대에 설 때면 열정과 힘이 넘쳤다. 실제

로 이날 콘테스트에서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만큼은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주어진 10분의 시간 동안 김씨는 관객을 들었다 놔다 하며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선거권 연령 조정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제시했지만, 맛깔스런 농담과 개인기로 사람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었다. 때로는 아저씨부터 할머니까지 넘나드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흥내로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김씨는 “만 18세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다”며 “군대까지 갈 수 있는 나이인데 유독 선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는 지우면서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상을 받은 김예진(21·여)씨는 심정전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각색했다. 심

봉사를 장애인 수당을 받는 시각장애인으로, 심정이를 기초수급자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묘사했다. 또 공약미 삼백석에 팔려간 것은 인신매매와 살인미수로, 병역아픔을 사기와 피의자로 설명했다. 재치 있는 그의 입담에 청중은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 2018년 심정을 자신과 비슷한 도래의 청년으로 묘사했다. 그는 “조선 시대의 심정은 육활상제에게 소원을 빌었지만, 현재는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고 있다”며 “소원을 잘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투표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심청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청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꿈을 이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여 투표하라”고 외쳤다.

청소년부에선 반장을 잘못 뽑은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연극으로 재해석 표현

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세종시 성남고 학생 18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용학(17) 군은 “민주주의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학교처럼 일상적인 모든 곳에 존재한다”며 “모든 사람이 사회문제를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고민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은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더욱 아름답게 피우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색만 기자 sam@joongang.co.kr



사진 중앙선거관리

중앙일보

10~70대 시민들, 일상 속 민주주의 경험 다양하게 표현

전국 143개 팀, 270여 명이 참여

중앙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경희대가 후원한 ‘강연콘테스트’는 ‘시민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상에서 겪은 시민들의 경험을 스피치·연극·춤·노래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했다. 이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에서 143개 팀(일반부 101개 팀, 청소년부 42개 팀) 270여 명이 참여했다. 3~4월 수도권(강원 포함)·충청·영남·호남(제주 포함) 등 4개 권역별 예선과 본선 무대를 거쳐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7팀이 12일 결선에 올랐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

인,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

결선에선 김홍신 작가를 위원장으로 박영국 경희대 부총장, 성악가 조율자, 영화배우 안석환 등 9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3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김 위원장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모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선 시민 목소리에 정치인들이 귀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6주간 진행된 강연콘테스트의 전 과정은 60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윤색만 기자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021면 종합

강연 콘테스트 수상자

- 대상(성남고) 김재휘(27), 세종 성남고(김용학 외 17명)*
- 중앙일보대상(최우수상) 김용학(33), 경기 도라고(하위) 외 15명*
- 경희대대상(우수상) 서울 정화여자상(자유전·활동진행)
-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장상(우수상) 김예진(21)
- 장려상(각각4명) 김범준(30), 손호진(40), 류현선(19)·전여경(19), 장비준(25)·차정환(23), 손지호(13)·윤산 신정준*
- 최진행(16)·경북 김진고*, 강원 불평고(손지유 외 2명)*, 대구 비슬고(장준은 외 8명)*

언론보도 현황

BreakNews

중앙선거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개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주제로 31일까지 접수

연광호 기자 | yjnews@kbsnews.com



【충북 브레이크뉴스】연광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5월 12일 KBS 아토틘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2012년 유권자의 날 제정 이래 올해 제7회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내가 경험한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 생활 속 민주주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NEWSIS 정치 > 정치일반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대상 차지한 김재휘 씨

기자 | photo@newsis.com

등록 2018-05-13 10:38:08



【서울=뉴스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7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여 12일 KBS 아토틘에서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일반부 대상을 차지한 김재휘 씨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선의 원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 2018.05.13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news 1

오늘 > 사회 > 일반

유권자 주제로 강연 펼치는 청소년들

13일(수) 13:24 | 서울 2018.05.13 13:24 | 서울 2018.05.13 13:24 |



12일 서울 여의도 KBS아토틘에서 열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에서 청소년부 참가자들이 강연을 펼치고 있다.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강연을 펼치는 대회로 2012년 유권자의 날 제정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8.5.13/뉴스1

한국어 경제뉴스통신사 - KNP통신

중앙선거관위 연수원,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 개최

(강력) 2018-05-13 10:43

(태그) #중앙선거관위, #선거연수원, #강연 콘테스트, #유권자의 날,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중앙선거관위)

【서울=KNP통신】강연 콘테스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하, 중앙선거관위 연수원)은 제7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해 5월 12일 KBS 아토틘에서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강연 콘테스트는 2012년 유권자의 날 제정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자유롭게 강연을 펼치는 대회다.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 143개 팀이 참가했으며 4월에 실시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청소년부·일반부 각 7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08

수상 후기

- 청소년부
- 대상
- 성남고 패밀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성남고 패밀리”팀입니다. 예선을 시작으로 결선의 좋은 결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학교와 계열의 특성상 한 학급이 3년간 유지 됩니다. 이번 강연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의 시발점이 어찌면 가족 같은 학급의 특성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종종 학우들끼리 모여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지켜보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현실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강연 콘테스트 포스터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당일 저희는 강연콘테스트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달 방법은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반장선거”의 대본은 작가를 꿈꾸는 3학년 선배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본을 제공 받고, 연출을 약속해주신 선생님과 학우들끼리 간단한 상의와 오디션을 통하여 배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장면을 분할하여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 중간 연습을 진행하면서 필요성, 전달목적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반영 된 것이 바로 중간과 마지막에 연출된 합창이었습니다. 합창곡의 개사 또한 연출선생님의 지도아래 학우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태도였습니다. 사실 강연콘테스트 진행 날짜가 시험기간과 겹쳐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이기에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콘테스트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방법은 점심, 저녁, 방과 후 스트레칭 시간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우들 모두가 찬성하였고, 선생님들의 많은 배려로 연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저희에게도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고 또 교육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투표권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시행하기 전에 유권자의 의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연콘테스트 강연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선을 끝으로 연극 “반장선거”의 막이 내렸다는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다들 묵묵히 창가를 바라보는 등 결선을 향해 가던 길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번 강연콘테스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추억을 남겨주었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최를 해주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저희를 예쁘게 바라봐주신 심사위원을 비롯한 청중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이에 자부심을 가져 주변인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추억을 남겨준 제 7회 유권자의 날 강연콘테스트, 이번 기회로 전국에 많은 유권자 그리고 예비유권자분들이 “투표”라는 두 글자의 중요성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부
- 최우수상
- 극단 사춘기



처음에는 학교에 공문이 와서 유심히 보다 주제가 독특하고 연극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극단 사춘기” 친구들과랑 경험과 추억을 쌓기 위해 시작한 대회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두 달 동안 고생하며 열심히 한 저희들에게 최우수상이라는 상이 주어 진거 같아서 더 뿌듯하고 기뻐던 것 같습니다. 즐기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무대를 한 거였기 때문에 큰 상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큰 상을 주고, 예선, 본선, 결선 3번의 무대를 설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를 통해 단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에 저희 강연 제목은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로 정해졌습니다. 강연 내용 역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어렸을 때 자주 보던 동화책에서 나오는 ‘지니’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좀 더 친근하고 독특하게 하여 사람들이 저희 강연을 보면서 투표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 투표하게끔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투표에 대해 공부를 하니 정말 우리나라 투표율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유권자로서 먼저 우리부터 실천을 하며 더 투표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유권자가 되었을 때는 투표를 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극단 사춘기” 단원들에게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부
- 우수상
- 그린나래



안녕하세요.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청소년부 우수상 수상자 그린나래 팀 황보진희, 차유진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작했던 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4월 7일 떨리는 손을 붙잡고 함께 대전 전통나래관에 도착하여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경쟁자들에 비해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많이 뒤쳐지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실수 없이 강연을 마쳤고,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곳에서 발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선 통과, 본선 진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에 신이 나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본선준비에 대한 걱정도 하였습니다. 강연 시간이 5분인 예선에 비해 본선은 10분이었기 때문에 분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고 교실에 남아 더 추가할 내용을 고민하고 조사하며 준비를 하고 피피티를 조금씩 수정해나가며 준비를 계속해왔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 유권자, 혹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조사를 하며 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졌습니다.

본선은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열렸고 아침 일찍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에 전날인 4월 20일 저녁 선거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팀들이 선거연수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연습을 하며 다른 일반부 팀들의 발표 연습도 보며 우리 그린나래 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계속 연습을 하였습니다. 일반부 팀들이 우리의 발표를 보며 피드백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며 같이 연습을 했으며 숙박을 제공해준 선거연수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선 발표는 예선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본선에 진출하니 결선까지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총 7팀이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6번째까지 팀명이 불리지 않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선진출 팀으로 ‘첫 선택, 첫 선거 마치고 처음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제목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선은 실수 없이 더욱 알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친구들이나 동아리 후배들에게도 발표를 보여주고 여러 피드백을 받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선거연수원에서 강연 콘테스트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영 교수님의 강의와 1대1

코칭으로 저희 팀의 강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5월 12일 kbs 아트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가 진행됐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행복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대기실에서 계속 연습을 했고 스태프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박수 속에서 발표를 마쳤고 후련함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왔을 때 내빈분들께서 해주셨던 발표 잘 봤다는 한 마디에 그동안 해왔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이미 결선에 올라온 것이 좋은 결과라는 생각으로 긴장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우수상이라는 결과가 있어서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유권자, 선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